한라시론

김 재 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센터장

연구자의 고뇌와 사회적 책임

"ChatGPT에 나오는 내용 말고 제주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면 좋겠어요. 연구원이시잖아요." 올해 수행하고 있는 제주 초고령사회 대응방안 마련 연구의 의견수렴 회의 중 참여자 한 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간 제주의 고령사회 분야를 연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심하면서 설정한 정책 방향이었는데 참여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연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연구원이다. 연구원이라는 직업으로 일을 한 지 제주에서는 5년 차, 육지에서 다닌 연구기관 경력까지 합치면 어느새 10년이 되었다. 전공 분야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육지로 대학원을 진학한 것이 이 직업으로 들어오게 된 첫발이었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면서 자료를 읽고 분석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박사과정까지 진학했고, 졸업 후 연구업무를 계속하고 싶어서 육지 연구기관 몇 곳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다 5년 전 다시 제주로 내려와 지금은 제주도의 고령사회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연구하는 게 좋고 재미있어서 선택한 길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제주의 고령사회 정책을 선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와 있다. 내가 쓰는 연구보고서의 한 글자, 한 문장이 제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개인적인 즐거움, 성취감, 만족감을 위해 연구하기보다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주 도정의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됐다. 그래서일까? 한 해가 지날수록 부족함이 더 많이 느껴지고, 연구하는 것이 무서워지고,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무겁게 다가온다.

연구자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결과는 우리 사회에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연구자가 잘못된 정보를 보고서에 실으면 그것을 보는 도민들은 잘못된 지식을 알게 되므로 연구자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연구해야 한다. 그렇기에 매년 주어진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그 결과들이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반성해 본다.

정책대안의 해답은 도민들의 삶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낱 부족한 연구원이기에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연구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는 연구자,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는 연구자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흘렀을 때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초고령사회에 제주 도민들의 삶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한층 성장해 있기를 희망한다.

사설

국고 반납 없이 콘텐츠지원센터 추진해야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여서 진퇴양난이다.

제주도는 올해 콘텐츠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콘텐츠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건물 노후화로 수년간 방치된 구좌읍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해 센터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국비 포함 98억원을 투입해 콘텐츠기업 입주 공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 콘텐츠산업의 산실로 만드는 작업이다. 오는 2027년 개관 목표인 센터는 이미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맞닥뜨렸다. 여가부로부터 1992년 이래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 지원된 건축비, 기능 보강 비용 등 38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조금법상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시행령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액의 보조금을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콘텐츠산업은 보조금을 반납해서라도 추진할 값어치가 있는 먹거리 사업이다. 높은 부가가치와 문화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아서다. 이왕이면 여가부를 설득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여가부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열린마당

길어진 바닷속 여름, 수산물이 사라지고 있다.

김 수 강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업생산금액은 10조918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해면 양식의 김류·넙치류 등 산지 가격 상승과 원양어업의 오징어류·가다랑어 등 생산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제주지역 어업 생산액(원양어업 제외)은 9077억3500만원에서 8838억2100만원으로 2.6% 감소했다. 이는 수온 상승으로 수산물의 회유경로가 변한 탓이다.

과거 여름은 평균 98일이었으나, 최근에는 127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바닷속 여름의 연장으로 이어져 주요 수산물 어장 형성 경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평균 수온이 최근 57년 중 가장 높은 18.74℃에 이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수산·양식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출어비용 보전, 주요 수산물 6종(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명태, 오징어)에 대한 수급 예측 및 공급망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기후변화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고도화된 수산자원 예측과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 정책의 성공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어획량 감소·운영비 증가 등 어려움 토로

오 지사, 새벽 위판장 방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오전 6시 성산포수협 위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위판 현장을 살피고 어획량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는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

오 지사와 만난 수산업 관계자들은 제주 연안의 갈치 어획량 감소로 대만 등 원거리 조업이 불가피하고 유류비 등 운영비 증가로 갈치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산물 수매자금 지원 확대, 해녀 소득원인 소라 가격 지원 등을 건의.

이에 오 지사는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과 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진선희기자

"건의사항 후속조치 속도 내라"

○…김완근 제주시장은 12일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읍면 지역 현장방문이 11일 추자도를 끝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신속한 답변을 드려야 한다"며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주문.

김 시장은 취임 후 지난해 7월 실시한 읍면동 경청회에서 수렴된 시민 건의사항까지 포함해 4월 중으로 부서별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회 개최 등 읍면지역 현장방문 건의사항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

특히 김 시장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이 긴박하게 진행 중인데,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목적에 비춰볼 때 본예산만큼 중요하다"며 "필요한 민생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노력해 달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제주올레 경제적 가치 3000억 이상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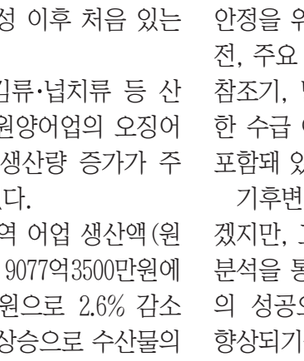
우리나라 '걷기 열풍'을 이끈 제주 올레길의 경제적 가치가 3000억원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이 그제 발표한 '제주올레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올레길의 경제적 가치는 이용가치 2142억원과 비이용가치 1033억원 등 총 3175억원으로 평가됐다.

올레길 이용가치는 방문객이 체감하는 경제적 혜택을 화폐로 환산했다. 올레길 방문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와 편익을 고려할 때 하루에 1인당 평균 7225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이용가치는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올레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화폐로 환산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올레 보전을 위해 1일 평균 1만 626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휴식·회복(58.2%)과 경관(52.0%)을 이용가치의 핵심 요소로, 비이용가치에서는 보전(56.6%)과 유산(38.8%)이 꼽혔다. 제주 관광자원 등으로 가치가 크다는 걸 입증한 셈이다.

제주 올레길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 확인됐다. 올레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당국, 도민,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앞으로 제주올레의 모티브가 된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세계적 도보 여행길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 제주의 가치를 높이며 연관산업과 연계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거듭나는 일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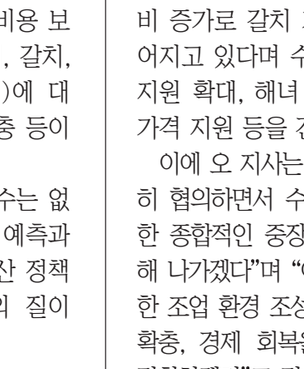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서귀포새마을금고 이사장



윤 재 순

예래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임 수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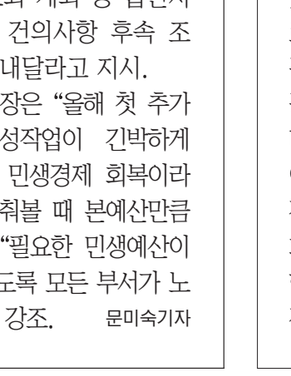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자문위원회위원장 문영섭

부위원장 김성범 위원 고대옥 위원 백성익 위원 박복현 위원 김용우
부위원장 오형욱 위원 고관범 위원 박명종 위원 임수진 위원 문대준
총무 윤재순 위원 양경환 위원 김미자 위원 강대규 위원 이한열
위원 양상훈 위원 송창구 위원 오명은 위원 강성방 위원 정기철
위원 김찬기 위원 김태문 위원 김용관 위원 고일학 위원 현재근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참조은새마을금고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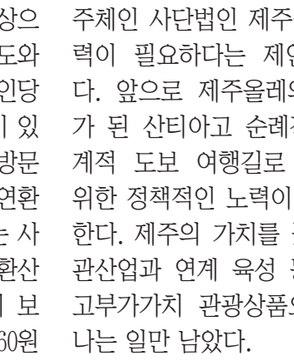
유 철 수

참조은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분권제주본부
대표 김 기 성

당 축 선
CONGRATULATIONS

동문새마을금고 이사장



강 성 신

동문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분권제주본부
대표 김 기 성